

수입세 사라져도 건재한 베트남 유제품

하노이지사

관세철폐에도 선전 중인 자국산 우유

-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VCUFTA)과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체결로 2018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에 수입되는 우유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게 되었다.
- 협정 이후 1월~2월 두 달간의 베트남 우유수입액을 살펴보면 호주와 뉴질랜드산 제품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호주는 수입액의 78.3%가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미국산 유제품의 수입액은 13.7%(1,750만 불)로 2.99% 증가했지만 이 역시 소폭증가에 불과하다.
- 관세 철폐로 수입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처럼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베트남 우유생산업체가 이미 프리미엄 유제품을 생산할 만큼 기술적으로 성장했으며, 적극적 마케팅으로 자국산 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베트남 현지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의 타격은 아직 덜 입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 3월 9일 가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을 계기로 수입 우유의 베트남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현지 유제품 기업, 새로운 협정의 영향 받을 듯

- 베트남 현지기업의 원유구입 가격은 리터당 11,000~12,000VND 수준이다. 180ml 짜리 우유 4팩이 한 세트인 제품의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 Vinamilk가 28,000VND으로 2위 기업 TH True Milk의 판매가 31,000VND보다 9.6% 저렴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가격·품질경쟁에서 다국적 브랜드와 경쟁 예상

-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우유수입세 철폐가 아직까지 베트남 유제품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향후 베트남의 우유수입량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국 제품이 도약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브랜드가 경쟁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소비자의 취향파악과 가격경쟁력 유지를 통해 베트남 유제품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출처 : Cafe F, 'Thị trường sữa ra sao sau 3 tháng thuế giảm về 0%?' (2018. 4. 2.)

Cafe F, 'Giá sữa khó giảm mạnh' (2018. 1. 19.)

The Ministry of Finance, 'FTA > Vietnam - Eurasian Economic Union (VCUFTA)' (2015. 7. 29.)

The Ministry of Finance, 'FTA > ASEAN(AFTA)' (2016. 11. 18.)

www.thmilk.vn